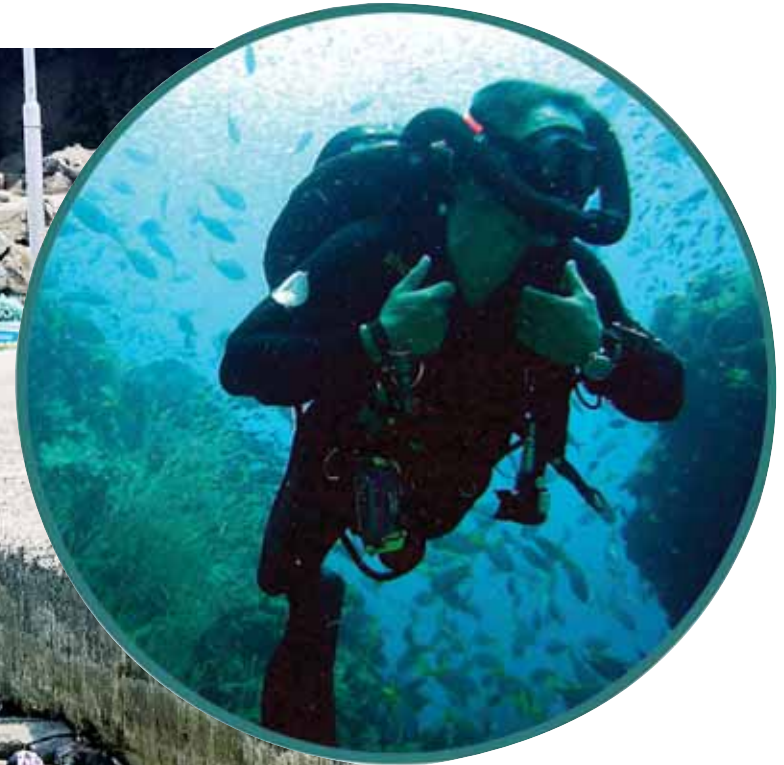


장비 걱정없이 떠나라...물빛 추억이 쏟아진다



바다 속 신비탐험 '스노클링'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뜬다. 누운 채로 해상 일출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린다. 호수처럼 잔잔한 여수 바다의 푸르름이 두 눈을 물들인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낭만의 바람결에 가슴 속까지 달달해진다. 무인도 수항도가 손에 닿을 듯 가깝다. 카약을 타고 가봐야겠다.

해양레저체험과 농촌체험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섬 캠핑을 원한다면 여수 금오도 대소여 마을 캠핑장을 적극 추천한다. 비렁길로 유명한 그 금오도 맞다.

여수 신기항에서 20분이면 도착한다. 우뚝 솟은 산과 울창한 숲이 보이는 이를 압도한다. 금오도 나무가 조선시대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이 비렁길 가는 길이다. '비렁'은 '벼랑'의 전라도 사투리로 주민들이 걸었던 벼랑에 나 있는 길을 산책길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푸른 바다를 끼고 아찔한 절벽 위를 걷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비렁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소여 마을은 천혜 환경을 지니고서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발걸음이 뜸한 곳이다.

60여 가구에 100여 명이 사는 대소여마을은 1879년 여수 소라면 달천 마을의 김양단이 조정의 명을 받고 금오도에 사슴사냥을 나왔다가 이 곳의 경치에 반해 정착한 뒤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버드나무숲이 있어 큰 버들개(큰 숲)와 작은 버들개(작은 숲)로 구분돼 불리다 마을이 커진 뒤 큰 버들개는 '대우', 작은 버들개는 '소우'라는 이름을 얻었다.

선착장에서 차로 5분여를 가다보면 캠핑장이 나타난다. 마치 동화 속 작은 무지개마을에 온 듯하다. 15년 전 폐교된 유성초등학교다.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 폐교에 주목했다. 향일암과 각을 같이하는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 맑고 깨끗한 바다,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에 2016년 7월 캠핑장을 만들었다. 건물 벽은 색색의 페인트로 옷을 입히고 아이들이 뛰놀

바다를 둘러놓은 폐교 캠핑장 게스트 하우스·글램핑 등 다양 심해가 보일 듯 투명한 바다낚시 보리멸 펄떡임에 스트레스 홀홀 요트투어·카약...하루해가 짧아

던 운동장엔 텐트 데크와 글램핑 등을 설치했다.

캠핑장은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영농조합법인 '버들인'에서 운영 중이며 가장 큰 매력은 여수 바다가 한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학교 교실을 그대로 살린 게스트하우스는 가족방, 2층 침대방, 온돌방 등 안락한 캠핑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방마다 최대 8명까지 사용 가능하며 TV·냉장고·에어컨·침구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캠핑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 3동은 내 집처럼 편안하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텐트 데크는 2~4인용에서 대형 텐트까지 설치 가능하다. 또 워터데크는 지붕이 있어 비가 올 경우 텐트가 젖지 않아 이용하기 편리하다. 사이트마다 배전함을 갖춰 전기를 편리하게 쓸 수도 있다.

부대시설로는 샤워장, 취사를 할 수 있는 실내 개수실(탕비실),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옥상 매점, 금오도 해풍을 맞고 자란 방풍 잎과 방풍장아찌·매실엑기스 등을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장 등이 있다.

1박 요금은 게스트 하우스·글램핑이 7~8월 성수기 10만원(비수기 평일 6만원, 주말·휴일 9만원)이고 기준인원 외 1인당 1만원이 추가되며, 캠핑 사이트는 성수기 2만5000원~3만5000원, 오토 캠핑장은 4만5000원이며 기준인원 외 1인당 5000원이 추가된다. 집을 풀었다면 이제 해양레저체험을 떠나자. 심해까지 보일 정도

로 맑은 바다 위에서 낚시대를 드리운다. 요즘엔 보리멸이 많이 낚인다. 갓 잡은 녀석을 재빠르게 회를 쳐 초고추장에 찍어 한 입에 넣으면 신선노름이 따로 없다.

요트투어, 가두리낚시, 통발이나 이강망(썰물 때 설치해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가두는 그물) 등 어장체험도 연중 즐길 수 있다. 카약을 타고 무인도를 갈 수 있는 아일랜드 호핑 투어, 맑은 바닷속을 유영할 수 있는 스노클링, 체험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하루 해가 짧다. 또한 방풍 따기(2월~10월), 개복숭아 따기(7월~10월), 표고버섯 따기(10월~11월, 2월~3월) 등 한겨울을 제외하고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농촌체험과 카약, 가두리낚시를 묶은 당일 체험, 바비큐 타임·비렁길 탐방·스노클링·생존수영 등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1박2일 코스, 여기에 무인도 체험이 추가되는 2박3일 코스 등 일정과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해양 레저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식도락이 빠질 수 없다. 금오도 특산품은 전복과 해삼이다. 정정해역에서 자라 식감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자연산이다 보니 전량 해녀들이 채취해 판매하고 있다. 갑오징어는 이강망으로 잡고 있다.

아침 해가 가장 먼저 찾는 곳, 제일의 비경 '비렁길'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금오도 캠핑장. 캠핑과 해양레저, 농촌체험으로 의미 있고 다채로운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과주 등 전국에서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7190-194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금오도캠핑장.com을 참고하면 된다.

/글=김지영 기자 ikna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폐교 리모델링한 마을 캠핑장



입구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방파제 앞을 지나가는 낚시배

마을기업 '버들인' 이사 김관숙씨

“그림같은 풍광·먹거리...와봐야 이 맛 압니다”

“젊은이들이 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여수 금오도 대소여마을 김관숙(71)씨는 20대에 물사람이 되고 싶었다. 육지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가난의 굴레를 떨쳐내고자 무작정 상경했다. 그러나 기쁨과 희망도 잠시, 뜻을 펼치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 했다.

“나무로 불을 지피며 밤을 지어 먹던 시절이었어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밥 할 나무가 없어 굶고 있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꿈을 접은 청년은 그렇게 다시 고향을 지키며 섬에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 지금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무인도에 자생하는 방풍나무를 발견해 3~4개 마을 공동으로 특화작물로 키워냈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일흔이 넘은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혀 보겠다고 나섰어요.



현대 생산한 사업에 경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 기만 했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11명이던 추진위원회 이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6명만 남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라며 “비렁길 덕분에 관광객은 많아졌는데도 우리 마을은 지나가는 마을에 그쳤어요. 그래도 캠핑장이 생기고 방문객이 늘고 있어요.”라며 뿌듯해했다.

이와 함께 어른의 미래에 대한 바람도 나타냈다.

“자연 어업에 의존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판매할 특산품이 없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70~80대라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어촌계 가입비가 3천만원이에요. 젊은이들이 돈이 아깝어요. 가입할 엄두를 못 내죠”라며 아쉬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고향 대소여 마을이 가진 거라곤 천혜 환경 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잘 가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성공할 거란 확신이 듭니다. 도로도 개설됐으면 좋겠고 바위산에 출렁다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현대 국립공원이라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죠.”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지영 기자 iknai@kwangju.co.kr

찾아 오시는 길

여수 금오도 대소여마을
(전남 여주시 남면 여천금이길 11-14)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 목포)방면→해룡교차로→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울촌)방면→돌산교차로→돌산, 향일암)방면→송시삼거리에서 '성두, 군내, 은적사 방면'→신기선착장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시내버스 109, 114번 '신기 정류장'하차(약2시간)→신기선착장(도보6분)
- ▶ 열차 서울·용산역→여수엑스포역→시내버스 2,333번~109번 환승'신기 정류장'하차(약2시간)→신기선착장(도보6분)